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가 말하는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몇 가지 팁

복잡한 세상, 거기에 얽힌 이해관계만큼이나 크고 작은 소송이 끊이지 않는 바이하로 '소송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지만 막상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가 막막하다. 자신에게 꼭 맞는 변호사, 어떻게 찾아야 할까.
취재 김은향·사진 조원석



원트로 법률상담 진행 절차

- STEP 01**
사이트(www.wantlaw.co.kr)화면 왼쪽에 위치한 분야별 변호사 카테고리 메뉴에서 해당 소송 분야를 클릭 또는 상단 검색창에서 키워드로 검색
- STEP 02**
분야별 변호사의 상세보기를 클릭
- STEP 03**
변호사 인터뷰 동영상(VOD), 상담분야 소속 연락처를 확인 후 내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선정
- STEP 04**
변호사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원트로를 보고 법률상담을 하러 가고 싶다"고 예약 또는 비공개 상담글 작성하여 상담 요청

* 원트로는 사건수임만을 목적으로하는 무책임한 무료상담만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변호사를 찾고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을 통해 간단한 법률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되는 방문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원트로는 정보만 제공할 뿐 중개수수료나 정보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강민구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원트로(www.wantlaw.co.kr)'는 3백50여 명의 변호사가 가입한 국내 최대 법률 자문 사이트다. 각 분야별 변호사 찾기는 물론, 변호사 프로필과 약력, 수많은 실무경험과 심층적 연구를 통해 얻은 법률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의도치 않게 송사에 휘말렸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제는 바로 '도대체 어떤 변호사에게 내 소송을 맡겨야 할까' 하는 걱정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 낭패를 보거나, 심한 경우는 변호사를 상대로 2차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하니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로, 기업법·부동산·경매·건설 등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 변호사에게 '내게 꼭 맞는 변호사 찾는' 해법을 직접 물었다.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변호사는 NO!

"사회가 변하고, 관련 법규가 좀 더 세분화되면서 실제로 소송이 많이 늘었습니다. 소송은 그 시대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녀 사이의 문제가 서로간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났다면 요즘은 경제적인 마인드가 많이 생겨서 각양각색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나마 유책사유를 구분하는 기준도 나름 뚜렷해서 비교적 간단한 민사 소송에 속하는 것이고, 기업 간 분쟁 등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관련 지식까지 필요한 복합적인 소송도 많이 있죠. 최근에는 상속 소송도 늘고 있어요."

강민구 변호사는 주로 기업법이나 부동산, 건설관련 분쟁, 관공사 입찰 사건, 형사소송 등을 맡는다. 그 외 민·형사, 가사, 세무, 행정, 기업 경영권분쟁 등은 각각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맡는 것이 법무법인 진솔의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

"개인 블로그에다 법률 칼럼을 많이 쓰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와 필요한 법률 지식을 최대한 쉽게 풀어 쓰려고 노력하고 있죠. 최근에는 제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심지어 지방은 물론 외국에서도 의뢰가 들어오죠. 요즘 변호사들이 개인 블로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관심을 갖고 본다면 블로그만 봐도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나와 비슷한 사례를 설명하는데, 의뢰인이 궁금해할 만한 것, 꼭 필요한 내용만 정확히 짚어서 쉽게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두루뭉술하고 뻘컘한 추상적 얘기, 교과서적인 개념만 늘어놓는 변호사도 있거든요. 그런 법률 사례를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그 문체에 관심이 많은 의뢰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변호사가 쓴 짧은 칼럼만 읽어 봐도 그 사람의 실무 경험 또는 포인트를 잘 잡고 있는 변호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대면해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다. 의뢰인이 여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 의도에 맞는 답을 바로 해줄 수 있는지, 또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이 치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줄 수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즉답을 피하거나,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한다거나, 의뢰인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핵심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한다. "논거를 대지 않고 무조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분야는 제가 잘 압니다' '자신 있어요' 라는 식의 추상적인 결론만 얘기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료 상담과 유료 상담이 있는데, 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변호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해요. 참고로 저는 유료 상담을 진행하는데,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상담료를 지불하더라도 자기가 정말 알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을 얻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에요."

내게 맞는 변호사 직접 찾아주는 '원트로'

요령을 알고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이 허박한 일반 의뢰인들이 전문가를 상대로 '내 공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 또 여러 번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다. 의뢰인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자문 서비스 사이트도 최근 각광받고 있다. 동영상상을 기반으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원트로(www.wantlaw.co.kr)'가 대표적인 예. 강민구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원트로'는 3백50여 명의 변호사가 가입한 국내 최대 법률 자문 사이트다. 각 분야별 변호사 찾기는 물론, 변호사 프로필과 약력, 수많은 실무경험과 심층적 연구를 통해 얻은 법률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이 좋은 것은 직접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변호사와 직접 대면하고 얘기하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트로'의 경우 변호사들의 동영상상을 의뢰인이 직접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변호사도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을 조리 있게 잘 하고, 풍기는 이미지가 신뢰감이 높으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조건인 셈이죠. 물론 앞서 말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변호사라는 전제 하에요."

'원트로'에서는 그 외 변호사 상담 요청 서비스나 소송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사이트는 이미 상당수 변호사들에게 인지도가 높아 가입하는 변호사가 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의뢰인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면서 의뢰인·변호인의 쌍방향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소송 의뢰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는 '총'이라고 생각해요. 잘 조종하고 겨냥할 수 있는 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총알을 채워주는 것은 의뢰인이거든요. 총알은 바로 '팩트'입니다. 변호사에게 충분한 정보와 사실 관계, 정황 등이 전달돼야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변호사에게 맡겼으니 다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법계 생각한 정보가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변호사가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거든요."

내게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내 편이 되어 날 변호해줄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파트너를 찾고 싶다면 강민구 변호사가 전하는 몇 가지 팁을 눈여겨보자.

강민구 변호사는 누구?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기 수료 후 1992년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 전담 변호사로 부임했다. 이듬해인 1993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발탁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등 여러 기관을 거친 뒤 2003년 '변호사 강민구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이후 미국 시카고 소재 명문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취득함과 동시에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 현재 뉴욕 주 변호사로도 등록되어 국제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진솔과 법률자문사이트 원트로(www.wantlaw.co.kr)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TV조선 <법대법> <낮뉴스, 정의의 조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법률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개인 블로그(http://mkkpractistory.com)를 운영 중이다.

